사람 하나 건지는 데도 내가 그 사람이 돼줘야 합니다

☞ 19면에서 계속

데 이쪽에는 오백 명밖에 안 됐답니다. 그래 그것을 다 해결을 하기 위해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생명들의 의식을 모두 투입했습니다. 자기 군사들 오백 명한테 투입을 하고 또 그쪽에는 그쪽대로 투입을 해서, 모두 자기 군사가 아닌 줄 알고 싸워서 오백 명을 다 해치우더랍니다. 이거는 그냥 옛날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물체가 오면 '아, 저기서 오는구나!' 이렇게 보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 오는 거는 누가 덜미를 쳐도, 누가 모가지를 친다 하더라도 못 보니까 몰라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군사 오백 명을 가지고 천 명을 이겼는데, 죽인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싸움이 멎고 편안하게 잘됐더랍니다. 피리 하나를 가지고도 그렇게 했고, 나무의 잎사귀 하나하나를 군사로 만들어서 투입을 해 가지고 이기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럼 지금 발전된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대로 천차만별의 그 마음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마음은 한계가 없어서 허공에 하나의 마음이 꽉 찰 수도 있는 거고,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마음대로니까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해도 모두 해 보지 않았으니까 아리송하고 모르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맛있는 자장면을 안 먹어 보고 얘기도 들어 보지 않았더라면 먹고 싶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먹어 보고 해 보고 했으니까 그게 하고 싶고 먹고 싶지, 보지도 못하고 먹어 보지도 못하고 맛도 모르고 누구한테 얘기도 못 들었다면 그건 아마 발전도 할 수 없고 먹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 보라는 겁니다. 평상시에 항상 '너만이, 너만이 할 수 있어!' 하면서, 바로 아까 컴퓨터 얘기 했죠? 구정물이 나올 때는 거기다 '구정물이 나오게 하는 것도 너니까 구정물이 안 나오게, 맑은 물 나오게 하는 것도 너야.' 하고 되입력을 한다면 구정물이 바로 말간 물로 화해서 나옵니다.

그런 것과 같이 팔자 운명은 없습니다. 모두 살기도 힘든데 여기 뭐가, 이사 가는데 손이 있어서 못 간다, 날짜를 봐야 한다 이러는데, 뭐가 있다고 날짜를 봅니까? 내가 '어느 날이 좋겠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날로 이사를 하는 거고…. 이 한마디로 다 아셔야 됩니다. 재 지내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다 들으시라고 이러는 겁니다.

우리가 재를 지낼 때도 떡 하나면 됩니다. 물, 초, 향, 떡 하나. 왜냐하면 그 살던 의식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버둥거리다가 갔는데 또 먹는 거를 갖다가 상에 놓고 의식적으로 항상 붙들어 매 놓는다면 이 공기 주머니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말려서 승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해도 아니 되고 너무 차려 놔도 아니 되고 그냥 떡 하나면 족하지 않으냐는 겁니다. 일체 만물만생이 떡 하나 가지고 다 먹고도 그 떡이 되남는데 말입니다.

이 도리를 알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모두 여러분이 마음속에다가…, 급하면 그렇게 차려 놓고 할 사이도 없죠. 상황에 따라서 급하면 그냥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여기다가…. 조상도 전부 한 줄에 꿰여 있어요. 콩 종자라면, 콩씨라면 콩씨대로 놓여 있고 팥씨라면 팥씨대로 모여 있지 콩씨하고 팥씨하고 섞어 놓는 법 봤어요? 과일도 전부 끼리끼리 모아 놓으면서도, 그것도 큰 것과 작은 걸 골라서 또 놔요. 인간 자체 살아나가는 것도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저절로 자동적으로 모이고, 기사님들은 기사님대로 자동적으로 모이고, 군인은 군인대로 자동적으로 모입니다. 아, 한번 보세요, 안 그런가. 제가끔 다 저절로 자동적으로 모여서 살죠? 그리고 더불어 도와 가면서 살죠?

만약에 옷 짜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옷을 지금 어떻게 입고 있으며, 농사짓는 사람이 없다면 농사지은 걸 어떻게 우리가 지금 먹고 지내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농사짓는 데에 가면 농사꾼이 높고, 배 타는 데 가면 뱃사공이 높고, 옷 짜는 공장에 가면 옷 짜는 공장 주인이 높고, 모두가 제각기 높으니라. 그래서 평등하니라." 하고요. 요새 내가요, 치아가 빠져서 치과에 가니까 치과 의사, 원장님이 제일 높습디다. 거기 가니까 내가 아주 밑에, 딱 그냥 밑으로 가 버리잖아요. 하하하….

그러니 이 만물만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라를 이끌어 가는 어버이라면 소 또는 말, 사람 등 어느 차원의 도량이든지 다, 그 도량에 가면 내가 그게 돼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얘야, 소를 건지기 위해서는 내가 소 속에 들어가서 내가 소가 돼야 하느니라. 그렇지 않다면 소가 저항력을 느껴서 한마음이 되지 않느니라. 내가 소가 돼야 소도 나에게 저항력을 느끼지 않아서 한마음이 되니까 건질 수 있는 건데. 안 그러냐?" 하고 말씀하시더랍니다. 소뿐이 아닙니다. 미생물에서부터 우주 또는 별성, 태양, 어느 혹성이라 할지라도 어느 거 하나 아니 되는 게 없이 되는 거죠. 저항력을 느끼지 않게끔 하나가 돼야 건지죠.

> 농사짓는 데 가면 농사꾼이 높고 배 타는 데 가면 뱃사공이 높고
> 옷 짜는 공장에 가면 옷 짜는 공장 주인이 높고
> 모두가 제각기 높으니라.
> 그래서 평등하니라.

사람 하나 건지는 데도 내가 그 사람이 돼 줘야 건져지는 거지 내가 잘났다고 그 사람을 끌려고 애를 쓰면 절대로 그건 이끌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모두 한마음이 되는 거지 내가 죽지 않는다면 한마음이 어떻게 되며, 내가 베풀지 않는데 어떻게 상대에서 베풉니까?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해도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나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 여러분도 다 그렇고, 또 각자 부처님들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지옥에 갈 땐 지옥고에 있는 거고 또는 중세계에 갈 때는 중세계에 있는 거고 상세계에 갈 땐 상세계가 주어지는 거니라. 그러니 어느 것이 내가 될 때에 나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했다고 할 게 하나도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온 자리도 없기 때문에 갈 자리도 없느니라." 하고요. 보세요! 이 자리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냥 모습만 찰나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모습과 차원이 주어지죠. 주어지는 모습과 차원은 자기가 한 대로 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은 중세계다. 하천세계로 떨어지거나 상세계로 올라가는 중세계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니까 공부를 해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되는 거니까 너 먼저 알아라." 이런 거죠.

그러니 소년 소녀 가장 돕기라고 하지만 그게 내 자식들입니다. '예전에 내 자식이었을 때 그렇게 불행했었고, 예전에 나였을 때 그렇게 불행했었고, 그러니 그 아픔을 어찌 다 말로 하랴.' 하고 그것을 내 아픔처럼 생각해야 되고, 물질적인 보시도 해야겠지만 정신적인 보시가 또 있습니다. 정신적인 보시는 둘 아니게 같이하는 공덕을 쌓은…, 그 쌓은 것도 없는 것이 공덕이죠. 공덕을 쌓은 그거를 한마음으로 같이한다면 차차 차차 그 애들이 잘되고, 마음들이 이리로 가서 나쁠 거를 저리로 가게 만들고,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그게 마음 보시입니다. 그래서 하는 사이 없이 하는 것이 마음의 진짜 자비한 보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 보시를 해서 잘되기 전에 벌써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애들이 또 활력이 없으니까 우선 먹을 걸 줘 가면서 정신적으로 보시를 해 줘야 잘될 거 아닙니까? (중략)

하여튼 그렇게 광대하고 무변해서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게 불교입니다. 불교는 그렇게 어떤 곳의 머리 깎은 스님네들만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를 아셔야 합니다. 집이 허물어지면 주인이 고치지 집이 서둘러서 고칩니까? 아, 생각들 해 보세요. 주인이 고치죠? 그러니까 나의 집합소인 껍데기, 내 집이 헐어지고 어디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집에서 고장 난 건 그 속에서 작용해 주는 바로 자기네들이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은 것도 그 속에서 지은 거니까 허물어지는 것도 그 속에서 고쳐야죠. 이열치열이란 말 있죠?

그러니 여러분도 앞날을 위해서 정신계를 소홀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항상 정신계와 물질, 즉 정신계와 이 몸이 둘이 아니게 움죽거린다는 거를 진실히 믿으시고 자기 몸, 자(子)는 보이지 않는 정신계의 자기 부(父)를 진짜로 믿어서 둘 아니게 평등공법을 쓰신다면 아주 좋으실 겁니다.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세세생생을 거쳐도 손색이 없을 겁니다.

지금 이 마음공부 하다가 그 몸을 벗는다 하더라도 그 차원은 그대로 가지고 요 세상에 다시 와서 또 공부하실 겁니다. 이 공부 하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서, 이 세상에서 살 때 원수를 지고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혼란을 일으킬까 봐 아예 까맣게 모르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이 공부를 한 사람들은 우주 한울에서, 즉 도리천에서, 즉 말하자면 열쇠를 주는 것이 바로 해인을 받는다고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일체제불의 마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일체 모든 중심에서 증명을 받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그대로 자기 정신계의 자기 주처를 진짜로 믿고, 자기 주인공을 진짜로 믿고 세상을 한번 새롭게 걸어 보세요. 그럼 실험도 되고 체험도 되고, 눈이 밝아져서 바다를 내다볼 수도 있습니다. '바다에 물고기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아하! 자동적으로 그 물 밑까지, 태양력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물 밑까지 살리게 하기 위해서, 또 먹을거리를 주기 위해서 물 밑까지 파도를 치고 그냥 돌게 하는구나.' 하고 알게 될 겁니다. 파도가 치고 온통 모두 물이 뒤집히면 '왜 그런가?'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니까요. 여러분도 지금 고생하는 것이 고생을 하다가 보면 느끼는 점이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는 그 고생한 게 계기가 되어서 그게 참 큰 재산이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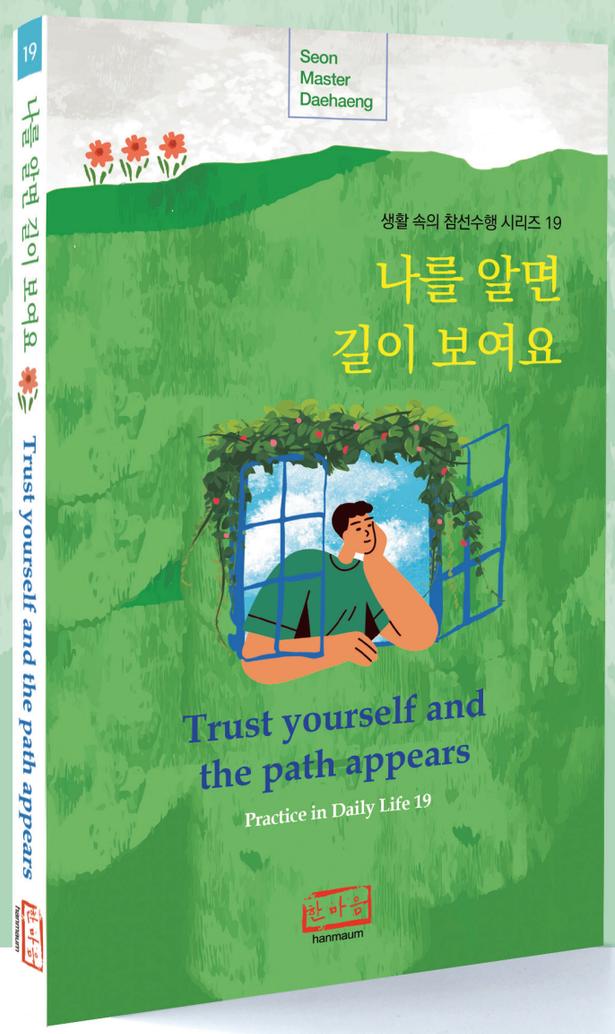
그러니 오늘 요것은 말로는 어떻게 다 할 수 없구요, 여러분이 스스로 해 보시도록 하세요. 그러면 체험도 되시고 또 자기가 진짜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기는 의식적으로 그냥 사는 거니까요.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6년 1월 21일 국내지원 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생활 속의 참선수행 시리즈 19 (한영합본)

나를 알면 길이 보여요

대행큰스님 법문



자기 삶을
당당하고 패기있게
이끌고 싶다면

답은 언제나 한 곳에
'내 마음 속'

인터넷 유명 서점과 대형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값 9,000원